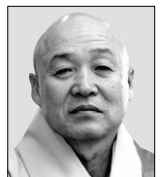


일주문



마곡사 신록축제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5월 19~20일 마곡사 일대에서 2012 마곡사 신록축제를 개최한다.



통도사 서각반 작품전
통도사성보박물관장 지준 스님은 3월 29일~4월 15일 통도사 기획전실에서 '제8회 서각반 작품전'을 개최한다.



능인선원 화성신령기도법회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4월 6일 화성 능인대학교 부지에서 화성신령산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고운사 빨리어 무료강좌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4월 매주 월요일 총 12회에 걸쳐 빨리어 무료강좌를 개최한다.



봉은사 보살계 수계산림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4월 24~28일 봉은사에서 윤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공생선원, 고우 스님 서장강연
공생선원 선원장 무각 스님은 4월 9일 서울 공생선원에서 고우 스님 초청 서장 법회를 봉행한다.



송림사 불교대학 졸업식
질곡 송림사 불교대학 학장 해성 스님은 3월 28일 송림사 대웅전 법당에서 수계 및 졸업식을 거행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취임
홍광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조경학과)는 3월 31일 2012한국전통조경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군중특별교구봉사단 5대 회장 취임
박주서 씨는 3월 23일 서울 호국원 광사에서 조계종 군중특별교구봉사단 심우회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화축> 현대불교신문사 이은정 기자

본지 이은정 기자는 4월 8일 12시 제천 청풍리조트 그랜드볼룸홀에서 여성수 씨와 화축을 밝힌다.

'있는 그대로'의 불교에 주목을

진제 중정 추대식 참가한 美 랍비 잭 뵘포라드

"진제 스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불교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런 불교를 본 적은 없다."

3월 28일 조계종 제13대 진제법원 중정 추대식에 참가한 美 랍비이자 종교학자인 잭 뵘포라드(사진)는 추대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뵘포라드는 30년 넘게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와 화합을 이끌어 온 세계적 종교간 대화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는 1992년 로마교황청이 과거 반유대인학살에 대해 유대인의 용서를 구한 '프라하 협정문' 작성에 참여했고 2006년 종교간대화위원회가 수여하는 '평화와 관용의 상'을 수상했다.

잭 뵘포라드는 "현대 미국에 알려진 불교는 만트라, 호흡 등 뉴에이지 경향이 짙다. 이것이 진짜 불교인가에 대한 의구심 지울 수 없다"며 "근본이 확실한 불교 가르침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한국불교가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뵘포라드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활발한 교류, 다언어 번역, 출판물 통한 전세계적인 콘텐츠 유포를 조언했다.

잭 뵘포라드는 "진제 스님을 내가

책 뵘포라드는 "진제 스님의 미국 방문 때 스님을 보자마자 비범한 종교 지도자라는 느낌 받았다. 다른 종교자들도 나와 같이 느꼈다"고 말했다.

뵘포라드는 "지난 2월 진제 스님이 美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에 앞서 뉴욕에서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할 때, 스님은 힌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등 여러 종교지도자의 어려운 질문에 너무나도 쉽게 대답했다. 마치 어떤 질문을 할지 알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다.

잭 뵘포라드는 "과거에 종교는 고립된 섬과 같이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종교학자들을 중심으로 상대편 종교를 바르게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내가 가진 화두도 내 종교에 충실하면서 상대편 종교에도 거짓됨 없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뵘포라드는 "서구사회에서 불교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웃종교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서구에서 불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서구사회에 맞추려고 하는 발한 교류, 다언어 번역, 출판물 통한 전세계적인 콘텐츠 유포를 조언했다.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는 있는 그대로 불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는 진제 스님의 진정한 불교 메시지가 다른 종교에 그대로 전달되게 하자는 의무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종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경제적인 힘을 능가하는 종교적인 힘은 좋게도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제 스님 같은 불교지도자들을 통해 세계종교가 제 위치를 찾기를 바랍니다."

조동섭 기자 oetana@hyunbul.com

범어사 차기 주지 수불 스님

부산 범어사 제26대 주지후보에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사진)이 선출됐다. 범어사는 3월 25일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에는 384명 선거인단 가운데 352명이 참여했다. 수불 스님은 352표 가운데 195표를 얻어 당선됐다. 원정 스님은 85표, 상운 스님은 70표



를 얻었다. 2표는 무효처리 됐다. 수불 스님은 1975년 범어사로 출가해 1978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안국선원을 개원해 조계종 내에서 선의 대중화에 앞장서었다. 조동섭 기자

"법인 설립 계기로 종단 중흥"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법인 등록한 총무원장 의륜 스님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이 법인으로 등록했다. 창종 19년 만의 종단 법인 등록이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겸 총무원장인 의륜 스님은 "창종 이후 지난해 송림사를 총무원 청사로 정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 법인 등록이 된 만큼 700여 신도들의 힘을 모아 종단발전의 기틀을 닦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륜 스님은 "향후 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행자교육에서부터 종단 구조를 보다 체계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윤명철 동국대 교수, 뗏목탐험대 출정

뗏목 항해 전문가인 윤명철 동국대 교수가 뗏목을 타고 필리핀부터 여수까지 탐험을 시작했다.

동국대 교양교육원 윤명철 교수는 3월 28일 동국대 이해관 예술극장에서 5명의 탐험대로 구성된 '3등어문명호' 출정식을 개최했다.

윤 교수는 이날 "4월부터 6월까지 뗏목으로 필리핀 루손섬을 출항해 대만과 오키나와, 제주도도 경유해 최종 목적지인 여수 엑스포장에 입항하는 탐험을 진행한다"며 "조류흐름과 해상상태 등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자들과 생명의 소중함 느끼고 싶다"

엄홍길 대한불교조계종산악회 초대회장

불자 산악인 엄홍길 씨가 거사불교 활성화를 위해 4월 7일 출범되는 대한불교조계종산악회(이하 산악회) 회장직을 맡았다.

엄홍길 씨는 "불자 산악인으로써 이번 산악회 창립을 맞아 불교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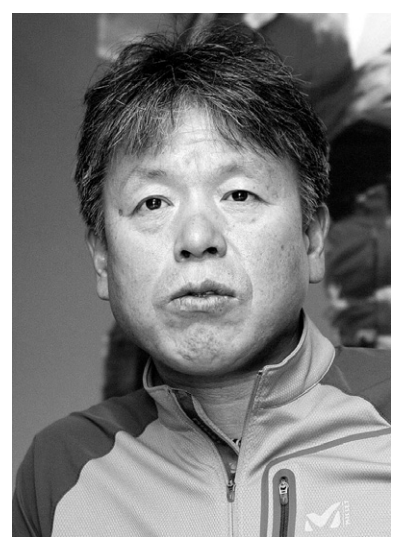
엄 씨는 "불자이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절에 다니면서 산도 오르게 됐고 불교에 관심도 갖게 됐다"며 "불교와 산과의 인연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을 오르게 되면 생명의 모든 소중함과 모든 인연에 감사함을 알게 된다"며 "이번 산악회 창립을 통해 불자님들과 소중한 인연을 쌓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포교원(원장 지원)은 이번 산악회 창립과 더불어 한국산악연맹과 연계해 박영석 대장 등 산악인으로 활동하다 회생을 당한 영가들을 위로하는 의식도 진행한다.

평소 등반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의 유가족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밝혀왔던 엄홍길 씨는 이번 행사에 대해 "포교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좌 등반에 성공한 엄홍길 씨는 "내 인생에 17좌 도전은 네팔지역에 16개 휴면스콜을 건립하는 것"이라며 현재 '엄홍길 휴면재단'을 통해 네팔지역 학교건립에 주력하고 있다.



포교원은 같은날인 4월 7일 계룡산 동학사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2012 국제민안 기원 1만인 계룡산 등반대회'를 봉행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중생의 아픔 노래한 반야월 선생 별세

3월 26일 노환으로 별세한 불자원로 가수 반야월(본명 박창오) 선생의 영결식이 3월 30일 진행됐다.

반 선생은 2500여 곡의 가요를 만들어내며 우리 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가수보다 반야월이란 이름의 작사가로 활동했으며 '울고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산장의 여인' '소양강 처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반야월 선생의 곡 대부분에는 중생의 아픔을 감싸 안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이 담겨있다. 해인사 약수암에 머물면서 만든 곡들이 그러하다.

"중생의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우서 부처님 무릎 앞에 합장을 하오"



(‘약수암의 밤’ 1954년 발표) 이 밖에 반야월 선생은 2005년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난 부처님이 따로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오. 내 마음만 바로 가지면 부처인데 그러니 내 작품 속에도 나타내지"라고 말한 바 있다. 반야월 선생은 마산방송국 문예부장, 한국가요작가동지회 종신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 한국전통가요사랑뿌리화장 등을 역임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dvertisement for Gou Kunsunim's 'Sejang' (Letter) event. Title: '고우 큰스님의 書狀'. Subtitle: '선수행의 요체 「서장」 문 없는 문을 열다.' Date: '개강 4월 9일 (월) 오전 10시 30분'. Contact: '문의 (02)900-2448'. Location: '도봉보건소 사거리 삼환프라자 7층'. Website: 'http://cafe.daum.net/zenmaster'.

Advertisement for Cheongdongbulsang Joosung Jeonmun. Title: '청동불상 조성전문'. Subtitle: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Images of three Buddha statues: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Text: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상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 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Contact: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Location: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내 불교전시관'. Website: 'www.seonghwamuseum.com'.